

# 종이없는 事務室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갖가지 변화가 일고있다. 인류역사에서 보아왔듯이 제1차 산업혁명때와 마찬가지로 제2차情報革命도 필연적으로 우리의 의식구조에 大變化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하겠지만 컴퓨터의 무한정한 능력은 드디어 인류가 2천년 가까이 사용해 오던 종이의 종말을 예고하였다.

韓國電氣通信公社에서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紙)대신 컴퓨터를 이용토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 펜대신 키보드를, 종이대신 터미널을 사용하여 사업내용을 기안, 결재받는 『종이없는 사무실』을 만들어 시험운용하고 있다.

종이가 없어지면 펜이 필요없게 되고, 펜이 없어지면 잉크도 사용처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종이에 관련된 시설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종이는 AD 105년 後漢의 蔡倫에 의해 발명된 이래 인류와 더불어 술한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면서 우리의 體臭를 간직해왔다. 또 종이는 소비량이 날로 증가하여 연간 2억t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은 주요산업의 하나로 굳게 자리를 잡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보급되어 종이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생활필수용화장지등을 빼고는 종이 생산은 더 이



## 박종현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회장

상 필요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요즘 종이로 만든 내복이라든지, 종이 손수건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製紙업계의 自救策으로 간주한다면 지나친 速斷일까.

이제 2천년 가까이 우리 문화를 창조해온 종이와 우리 주변에서 점차 사라져 가는 것과 발 맞추어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는 종이문화에 대한 固定觀念들도 하나하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竹簡대신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한 2천년전 조상들이나 종이대신 터미널을 사용하는 오늘날의 사람 모두가 생활양식은 달라도 그 本性은 같을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펜을 들고 직접 종이위에 글을 쓰던 필자는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변화를 실감해본다.